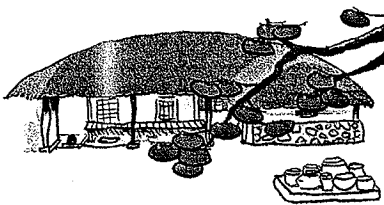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향 노천명



언제든 가리라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아이들이 하늘타리 따는 길머리에
 학림사 가는 달구지가 조이며 지나가고
 대낮에 여우가 우는 산골 등잔 밑에서
 딸에게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었다

동굴레산(山)에 올라 무릎을 꿇고

접중화 심아 뼈곡새 장구채 범부채
 마주재 기록이 도라지 체니 공방대
 공취 참두름 개두름 훗잎나물을 뜯는 소녀들은
 말끝마다 꺾 소리를 찾고
 개암쌀을 까며 소녀들은
 금방망이 은방망이 놓고 간
 도깨비 얘기를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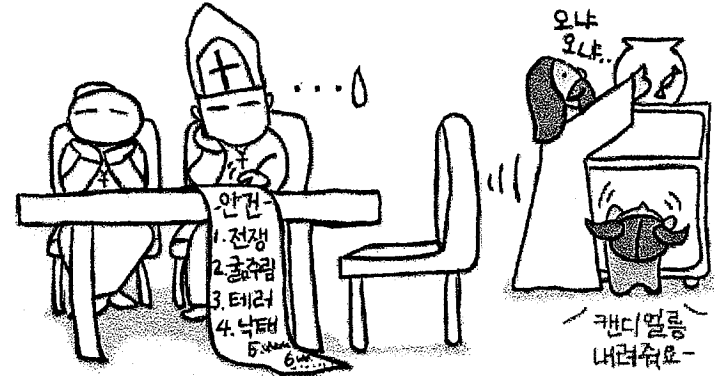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지기 전도사가 강도상을 치며
 설교하던 산골이 문득 그리워
 아프리카서 온 반마(班馬)처럼
 향수에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 가 살다 죽으리

메밀꽃이 하-얇게 피는 곳
 나뭇짐에 함박꽃을 꺾어 오던 총각들
 서울 구경이 원이더니
 차를 타보지 못한 채 마을을 지키겠네

꿈이면 보는 낮익은 동리
 찔레순을 꺾다 나면 꿈이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3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9월 18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찮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fasacafe.com

하다하다 지쳐 나조차 잊고 있던 기도마저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하찮은 저의 가난한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않고 귀 기울이시는 주님!
 언제나 되어야 내가 원하는것을 응답받지 못하여도
 당신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뻘 그랬지 ▶ 추억의 귀성열차

1년이면 두차례, 구정과 추석이면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자가용이 흔치 않던 시절인지라 기차표를 예매하는 역광장에는 발디딜틈 없었지만 그렇게 입석표라도 구하면 마치 고향에 이미 다 온것 같았습니다. 앉은 사람보다 서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기차칸의 짐 올려 놓는 선반은 용감한 이 저씨들의 편안한 좌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차장 아저씨로부터 용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추석 길은 고향에 두고 온 나를 찾으러 가던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문제가 생긴 다음
 기도하기 보다는
 평상시부터 거래를 터라.

◀인품따라 행하기▶

투덜대지 말라.
 그러다간 평생
 덜덜대며 살게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 회 의 기 도 Confession Pray		
용 서 의 선 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 찬 송 Hymn	28장	다 갈 이
*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d	44 (요 1장)	
*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509장	
기 도 Pray		정덕수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5:1-4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애통해 할 줄 아는 자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30장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박덕철, 정혜숙 집사, 유영, 찬준)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9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4	이재영	박상욱	<현관> 박일영, 최재학
11	장현중	박수진	
18	정덕수	박 실	<본당> 노은숙, 정희자
25	지찬영	박제란	

◆9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4	성찬식 아버지주일	Father's Day(4) 구역예배(9)
11		민음의어머니기도회(13)
18	식사친교주일	추석(18)
25	이삭줍기주일	당회, 선교회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2시

1. 교우소식
<이사> 서재오, 이수은 성도. ☎ 410-7368. 70A Braemar Rd. Cast Bay
이재영, 김경숙 집사. ☎ 478-5540. 22 Mercury Lane. Mairangi Bay
<장례위해 한국방문> 김경숙 집사. 오빠의 별세(교통사고).
2. 오늘은 고국의 추석입니다.
*"달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달이 아름다운 추석입니다. 가족과 혹은 친한 교우와 함께 보내시는것도 진한 추석의 정취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 송편을 나누면서 한가위의 넉넉함을 나누겠습니다
3. 정기확대당회(예고): 다음주일에 모입니다
4.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 교회당>
*일주일에 한번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 지기 쉽습니다. 수요일 밤의 한 시간을 주일만큼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 놓아 두십시오.
5. 유아부예배: 교회당 뒷편 유아실에서 드립니다.
*아동부는 St David's Church에서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St David's에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Hall이 본격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불편함이 많지만 공사중에도 화장실 사용은 예전대로 사용합니다.

◀착한 시인들▶ 한국의 가을 이지엽

우리나라 가을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강을 끌고
달은 가을가을 수월래에 떠오르고
단풍 든 마음 하나 둘 마당귀로 모입니다
아가, 힘들지야 여원 등을 토닥이는 밤
무릎 꿇인 사람들이
물 소리에 귀 밝습니다
붉은 감 한 틀에도
천년 푸른 바람이 지납니다

가을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싱싱하게 푸르기만 했던 여름색들이 제각기 자기 빛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떠나 살던 피붙이들의 귀향으로 고즈넉했던 고향이 사람들의 색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 호뭇합니다. 여름내 탄 손으로 등 두드려주는 어머니의 위로, 작년보다 훌쩍 커서 내려온 손주들의 생기발랄함, 삶의 흔적이 점점 깊이 묻혀져 가는 자녀의 얼굴.... 모두가 사랑으로 그려지는 그림이고 사람들만의 색깔입니다.